

## 마쓰노오타이사 신사

‘마쓰오상’이라고 불리며 친숙해진 마쓰노오타이사 신사는 옛날부터 술 양조와 된장 만들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번성을 기원해온 신사입니다. 경내에 있는 ‘가메노이’라는 신성한 우물에서 길은 물로 술을 빚으면 술이 상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마쓰노오타이사 신사는 교토가 일본의 수도가 된 794 년보다 이전인 701년에 호족인 하타 가문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주신은 산의 신인 오야마구이노카미와 수운(水運)의 여신인 이치키시마히메노미코토입니다. 남쪽에 있는 셋샤(본사의 제신과 인연이 깊은 신을 모신 신사)에는 달의 신인 쓰키요미노미코토가 모셔져 있습니다. 마쓰노오타이사 신사는 거북이 상과 봄에 피는 선명한 노란색의 황매화, 아름다운 세 곳의 정원, 그리고 술 양조와 술에 관련된 부적으로 유명합니다.

### 본전

본전은 ‘마쓰오즈쿠리’라는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많은 신사에서 는 정면 지붕이 길고 배면 지붕이 짧은, 비대칭의 ‘나가레즈쿠리’라는 양식을 사용하는데, ‘마쓰오즈쿠리’는 정면과 배면의 길이가 같고 휘어진 맞배지붕이 특징입니다. 수 세기에 걸친 세월 속에서 교토의 오래된 건축물은 대부분이 화재에 의해 소실되었으나 오에이 시대(1394~1428년)에 지어져 1542년에 대규모 복원이 이루어진 마쓰노오타이사 신사의 본전은 그러한 운명을 피해 시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신의 사자인 거북이

전설에 따르면 이 신사의 주신인 오야마구이노카미는 일찍이 가까운 강을 거북이와 잉어를 번갈아 타면서 여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두 동물은 신의 사자로 간주되어 경내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거북이 상이 눈에 띕니다. 본전 양쪽에는 작은 거북이와 잉어 상이 있으며, 또한 누문을 들어간 곳에 있는 데미즈야와 본전 뒤편의 신성한 폭포 가까이에 있는 가메노이 우물 옆에도 거북이 상이 놓여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나데카메’라고 불리는 작고 검은 거북이 상으로서 쓰다듬으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 시게모리 미레이가 설계한 세 곳의 정원

마쓰노오타이사 신사에는 유명한 정원 디자이너인 시게모리 미레이(1896~1975년)가 설계한 세 곳의 정원이 있습니다. 1975년에 완성한 이 정원들은 전통적인 미학과 현대적인 요소를 조화한 정원을 다수 설계한 시게모리 씨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교쿠스이노니와’(굽이치며 흐르는 물의 정원)는 높낮이 차를 두고 돌을 전면 에 깔 가운데를 작은 시냇물이 굽이치며 흐르고, 그 안쪽으로는 뾰뾰이 심어진 영산백 나무와 바위가 교묘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귀족들이 우아한 연회를 열었던 헤이안 시대(794~1185년)의 정원을 방불케 하는 풍경입니다. 오솔길을 따라 더 나

아가면 뾰족한 큰 바위가 연이어진 원시의 산꼭대기에 신들이 강림하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조코노니와’(상고의 정원)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문 바로 바깥에는 가마쿠라 시대(1185~1333년) 양식의 지천식(池泉式, 지천은 정원에 판 연못) 정원으로서 중국의 불로불사의 낙원을 표현한 ‘호라이노니와’(봉래의 정원)가 있는데, 바다에 떠 있는 섬들이 커다란 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장권이 필요하며, 이 입장권으로 신조칸도 참배할 수 있습니다.

## 신조칸

신조칸(神像館)은 ‘교쿠스이노니와’와 ‘조코노니와’ 사이에 있는 작은 보물관으로 21구의 신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마쓰노오타이샤 신사의 주신인 오야마구이노카미, 이치키시마히메노미코토, 쓰키요미노미코토를 표현했다고 하는 3구의 커다란 목제 신상입니다. 조각상이 숭배의 대상인 불교와 대조적으로 신도(神道)의 신들이 조각상으로서 물리적으로 표현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헤이안 시대(794~1185년)에 조각된 마쓰노오타이샤 신사의 삼신은 신도(神道)의 신을 표현한 상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